

국어학, 연구에서 소통으로

- 김미형 한국공공언어학회 초대 회장



김미형 한국공공언어학회 초대 회장

질문자 김태경(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원장)
 때 2018. 10. 8.(월) 곳 강남구 커피숍

“소통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된 인권 존중의 시작이다.” 김미형 상명대학교 교수는 소통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기본적인 소통에서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4월, 김 교수는 한국공공언어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공공언어학회는 관공서, 기업 등 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보다 쉽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실천적 기틀을 만들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김미형 교수는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나 청소년 언어 개선에도 관심이 많다.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원장,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을 맡아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고, 청소년 말하기 지도, 우리말 가꿈이 등 다양한 활동을 이끌면서 학계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업무 추진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글 지킴이를 자처하며 지난 30년간 바른 우리말 교육을 실천하고 연구해 온 김미형 교수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태경 먼저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름에 열린 전국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연수회 때 뵙고는 처음이네요. 학기 중이기도 하고 한글날을 앞두고 여러 일로 바쁘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김미형 이번 학기에는 학부에 한국어 교원 과정이 신설되면서 새로 맡은 교과목의 수업을 준비하느라 적잖이 바빴는데, 지난달부터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말하기 지도, 외국인 한국어 경시대회, 우리말 가꿈이 활동, 지역 축제 현장을 찾아가는 한글 바로 쓰기 행사 등 국어문화원 일로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어 버렸네요.

김태경 한국공공언어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본 학회가 어떠한 취지로 창립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와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형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공 언어는 무엇보다 쉬워야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자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이기에 허투루 해서도 안 되고 미루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문화재 안내판이며 식물 표지판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모름지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쉽고 바르고 품격 있는 공공언어를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어기본법」 제24조에서는 국어문화원을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언어를 깊이 연구하고 널리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놓았는데, 연구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비해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지지 않는 점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더욱이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는 평가 척도에서부터 쉬운 한국어 쓰기 지침에 이르기까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많은데 마땅한 소통 창구가 없어 학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언론인 등 공공언어 사용자 간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공언어에 대한 생각을 깊고 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 한국공공언어학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전국 20개 국어 문화원 원장님들과 연구원들이 뜻을 모아 참여해 주셨는데 차츰 회원을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에는 제1호 학술지를 발간하고 내년 봄에는 학술 대회도 열어 기틀을 다져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언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김태경 ‘공공언어’가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미형 좁은 의미로 공공언어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및 산하 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뜻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공적인 언어라면 무엇이든 공공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

매체 언어를 비롯하여 은행이나 터미널 등 공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공공언어에 포함됩니다. 보험 약관이나 제품 사용 설명서도 예외가 아니며, 각종 연설문과 안내문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공공언어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경 공공언어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김미형 공공언어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합니다. 한자어나 외래어뿐만 아니라 한자나 로마자도 그 자체로 뜻을 금방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전문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적지 않은 언어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불통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 출생 신고서에 사용된 ‘거소’나 ‘인우인’과 같은 말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이므로 사람들이 그 말 뜻을 몰라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라고 진열해 놓은 지역 관공서의 정책 홍보물에도 ‘एको 마일리지’, ‘마이크로크레딧’, ‘SOS넷’ 등 생소한 이름투성이입니다. ‘एको’를 ‘친환경’이나 ‘환경 친화’로, ‘마일리지’를 ‘이용 실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을 ‘무담보 소액 대출로 바꾸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국민의 알 권리도 지키고, 정책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려운 공공언어를 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불편해도 그냥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인권 존중이란 그런 부분을 어루만지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쉬운 공공언어 사용은 민주 시민 사회의 기본 요건에 해당합니다.

김태경 지금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공공언어학회의 창립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지금 사용되는 공공언어가 어렵다는 뜻도 되는데요. 헌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의 조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공공언어의 예시 같습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접하면서 불편을 겪는 공공언어의 또 다른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미형 법제처는 중앙 행정 기관 중에서도 눈에 띄는 모범적인 기관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레일’, ‘케이워터’, ‘코스콤’, ‘엘에이치(LH)’, ‘엔에이치(NH)’ 등 공공 기관의 이름을 영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클린교차로’, ‘유(U)턴 기압’, ‘수출 인큐베이터’,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도어개폐’, ‘바우처’ 등 정책의 이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보도 자료를 보면 “3월 도로 블랙아이스·포트 홀 조심,”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와 같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참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은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 국어는 이전까지 사용되지 않던 신조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계층 간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소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언어를 쉽게 써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김태경 하지만 공공언어의 변화는 학회와 국어학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의 의지’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충남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공공 기관의 의지를 보여 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 기관에서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시도해볼 만한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형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현행 국어책임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어전문관 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대다수 공공 기관에서는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국어책임관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외적인 일이 새로 생긴 꼴이므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 등과 같은 형태의 소극적인 방법 외에도 ‘공문서 작성 능력 시험’이라든지 공문서 진단 결과를 교육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교육’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뭐든 쓰고, 뭐든 쓰지 마라.”와 같은 형태의 계몽적인 접근이 아니라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어 실력과 사고력을 기른다면 바른 표현 방법, 인간적인 소통 방법 등을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공문서 바로 쓰기라는 지엽적인 접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언어 개선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 전격적인 투자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김태경 영국의 크리스 마허(Chrissie Maher) 여사의 활동(행정, 법률 등 공공 분야의 언어 쉽게 쓰기)이나, 미국의 쉬운 영어(Plain English) 쓰기 운동의 발생 배경과 성과(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의 공공언어 개선 사업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김미형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은 형태의 공공언어 공인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쉬운 영어 쓰기 운동과 같은 형태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공공언어 운동을 시작해서 언어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공언어 정책의 순기능을 위하여, 즉 공공언어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여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어학자와 국어 운동가로만 되는 일이 아니고, 전 영역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야 하고 정부가 이를 주도하거나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정성과 언어 사용의 실용성을 함께 인식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김태경 이쯤 되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공언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공공언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김미형 저는 국어 공부が好き해서 그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했었고, 학부 교육과 국어운동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말은 곧 정신’이라는 명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이후 살면서 경험해 보니 정말 많은 갈등들, 이를테면 개인 간 갈등, 사회적 갈등들은 모두 언어 표현과 소통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부모가 말하기 방법에 좀 더 신경 쓰면 더 훌륭한 자녀 교육이 될 수 있고, 정책 설명에서도 담당자가 좀 더 현명하게 표현하면 효과가 더 좋을 텐데, 그 점을 놓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불우한 일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희망의 싹들이 숨어 있습니다.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토대’에 해당하는 기본 사실들에 대한 집중과 투자입니다. 국어를 잘하면, 합리적 생각을 잘하게 되고, 그것이 곧 원활한 소통으로 이어져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언어를 바르게, 잘 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대학에 국어문화원이 설립되고 이 일에 종사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 우리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에 시작한 것으로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의 공식 이름입니다. 쉬운 언어, 정확한 언어,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목표로 삼는데, 전국 국어문화원과 공공 기관의 국어 책임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전 국민의 공감대는 불러일으키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공공 기관에서 사용되는 공공언어 속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고쳤는데, 또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서, 공공언어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찰하며 순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야 할 표현이 생기면 정성을 들여 정밀하게 만들고, 이미 사회에 나온 너무 어려운 말들은 꾸준히 고치며 쉬운 말을 쓰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

김태경 공공언어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언어 파괴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언어 실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김미형 청소년 시절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거치고 있다는 것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럴 때일수록 어른들은 청소년에게 자유롭게 말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마당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요즘 대학 입시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여 입학 당락을 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에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 비추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제도를 건강부회처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 글을 쓰는 교육, 자기 글을 수정·보완

하는 교육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교사들은 학생들의 글을 얼마나 고심하며 개선하는 교육을 했나요? 교육 과정 자체에 그런 고민이 없는데 왜 대학 입시만 훌륭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어른들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 정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가 생기면 바로 뒤따라 편법과 같은 전략들이 터져 나오는 이 사회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점들이 안타깝지만 저 역시도 대책 없는 어른이라 자책하면서 국어 문화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작은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죠.

김태경 청소년들의 언어 파괴 현상을 포함하여 욕설, 비속어 남용, 언론을 비롯한 공공 기관의 외래어 남용이 우리 사회를 소통의 부재로 내몰고 있다고 보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특정 계층의 언어 사용이 전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비할 것 같은데, 생각과는 달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나 계층을 아우르는 언어가 아닌 일부 집단에서 소통되는 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준말이나 은어는 청소년기라는 특성에 의해 나타나므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되진 않는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특정 계층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미형 한 나라의 구성원은 당연히 집단별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끼리 잘 소통이 되고 별문제 없는 신조어나 축약어에 대해 기성세대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이를 나무라듯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갖고 싶기도 할 것

이고, 이를 통해 그들만의 세상을 공유하는 느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언어의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매우 신중히 생각하고 정당한 논리가 세워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속어의 잦은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속어의 잦은 사용은 사고력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화나는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화가 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비속어를 내뱉는 것은 감정의 배설을 통해 그 상황을 끝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 자꾸 부조화가 마음에 축적되겠죠. 비속어를 사용해야 할 때, 자기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 방안이 개발되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김태경 공공언어 부분은 정부 혹은 관계 부처라는 ‘덩치가 큰 집단’이 국민 ‘개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청소년이 사용하는 언어는 청소년이라는 ‘작은 집단’이 ‘보다 큰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형국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앞서 공공언어의 변화를 위한 요소로 짚어 보았던 ‘공공기관의 의지에 ‘개인의 관심’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을 쉽고 품격 있게 가꾸기 위해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미형 지금은 청소년 언어에 대해 마치 ‘잘못하고 있으니 바로 쓰라.’는 계몽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해요. 청소년 언어는 그 시기에 드러날 수 있는 온갖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 그들은 반항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청소년 시기의 꿈을 이해하고 그들이 꿈을 위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축구를 못하게 하고 학원을 보내요. 좋은 책을 읽고 싶은데 대학 입시 때문에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부모들은 청소년들을 꼭 잡고 그들의 생활 계획을 세우고, 사회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생의 운명이 바뀐다고 위협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찌 청소년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어른들이 꼭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청소년들도 잘 모르고 습관처럼 내뱉는 비속어의 사용은 자제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국어문화원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비속어 금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언어의 사례로 저는 누리꾼 언어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댓글에 욕설로 도배를 하는 누리꾼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점에 대해 이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문화원에서 욕설을 쓴 댓글에 대해 ‘말을 곱게 하자’는 댓글을 다는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댓글이 달리면 더 이상 악성 댓글이 달리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요. 언어를 바르게 쓰는 일은 국민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 무엇이 개개인의 언어 사용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공공언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초등학교 이후 국어 바로 쓰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언어는 우리 사회의 모범 언어로도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김태경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사업도 진행하시면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수상하셨는데요. 공무원, 청소년,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위한 우리말 교육에 두루 힘 쓰고 계십니다. 언어 교육과 언어 개선을 소통의 방안으로 의식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어학자로서 국어보다 더 광범위한 ‘소통’이란 담론에 이토록 힘을 쏟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미형 국어로 소통을 잘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만나며, 특히 그 점을 확인하곤 합니다.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이주민 여성 대상 교육을 실시한 지 십여 년이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소통이 안 되어 겪는 가정불화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국어 실력이 늘면서 가정불화도 줄고 자신감 있게 가정생활도 하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또 청소년에게는 나쁜 말은 쓰지 말라고 금지하고 계몽하기보다 국어 생활을 활발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 난국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학생들에게 ‘하루 한 가지씩 친구에게 질문하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를 톡 치고 지나가는 친구에게 예전 같으면 학생들이 즉각 비속어나 거친 행동으로 반응했을 텐데, “○○야, 나 왜 쳤어?” 하고 묻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 모르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가라앉으며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비속어를 쓰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 원활한 소통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김태경 여러 사람이 접하게 되는 방송에서도 언어 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형 네. 방송 언어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방송 언어는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생각을 확장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는 좋은 대화를 하면 그 영향력이 바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것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접근으로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통로를 막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방송 언어는 표명이 되면 대중들이 쉽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중 하나만 들어 보면, ‘해운대 닭 뼈’ 사건인데요. 여름철에 해운대에서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닭튀김을 배달시켜 먹고 닭 뼈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서 모래사장에 뼈죽뼈죽 박힌 닭 뼈에 사람이 다치는 사건을 보도했었어요. 그런데 사건의 초점은 통닭집 배달원이 기자의 눈을 피해 배달하는 현장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잘못된 사람은 분명 닭 뼈를 모래에 버린 시민들인데 애꿎게도 배달원과 통닭집이 문제인 양 몰아간 거죠. 저는 그때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보도를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됐었어요. 피서를 즐기면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왜 잘못이라는 건지, 참 비논리적인 내용을 보도 하더라고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국어학자로서 국어보다 더 광범위한 ‘소통’이란 담론에 힘을 쏟는 이유는 바르게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대로 된 인권 존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거칠지 않은 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에는 마음을 열고 자신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접점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어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경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나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형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국어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작은 바람이 있는데요. 언중들이 국어 능력이 곧 사고 능력이라는 사실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확인하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 뭘 더 알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어 능력을 기르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과연 국가가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 얼마만큼 주목하며 노력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많이 아쉽고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어 정책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그에 필요한 기초적인 연구와 교육은 저희 학회를 비롯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 등이 책임지겠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좀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공공언어를 쉽게, 바르게,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태경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 네, 고맙습니다.